

한국 사회복지학 비평

-형성 초기 1세대의 개론서와 역사주의 관점 중심으로-*

최 옥 채

(전북대학교)

[요 약]

이 연구는 “초기 한국 사회복지학은 어떤 영향을 받아 무슨 내용으로 형성되었는가?”라는 연구주제를 역사주의(historicism) 관점에서 파악하여 한국 사회복지학의 출발점을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 1세대 연구자가 저술한 개론서 세권을 기본 자료 삼아, 1) 원본의 역사적 개요, 2) 연구자의 개인사적 성향, 3) 주요 용어의 역사적 적용, 4) 사회복지학 내용의 역사적 맥락과 같은 틀을 만들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 사회복지학 형성과 관련하여, 1) 개론서 내용을 만회하기 위해 생존하고 있는 1세대 연구자로부터의 자료수집, 2) 기독교의 영향에 관한 연구, 3) 외국 원조 기관의 영향에 관한 연구, 4) 미국과 일본 사회복지학의 영향에 관한 연구, 5) 초기 이후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규명하는 연구 등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아울러 각 저술과 연구자 개인사에 관한 연구를 더욱 상세하고 충실히 진행하지 못한 점을 이 연구의 한계로 꼽았다.

주제어 : 한국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비평, 역사주의 관점, 1세대, 개론서

1. 문제제기

한국에 사회복지학이 저술로 자리 잡은 지 60여년에 이르고 있다.¹⁾ 한국의 연구자가 소개한 사회

* 2012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자유주제논문으로 발표한 후, 토론자를 비롯한 참석자들의 우정어린 지적을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하였음.

1) 이는 1955년 김학묵이 낸 『사회사업개론』에 근거해서이다.

복지학이 저술로 형태를 갖추어 사회복지학 교육의 기반을 이루고 있어 이들 저술을 빌어 한국 사회복지학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당연하다.²⁾ 특별히 1세대 연구자가 소개한 사회복지학 저술은 지금의 한국 사회복지학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에서 소중한 연구 자료임이 분명하다. 그러면 이들 연구자가 저술을 통해 소개하는 사회복지학은 무슨 내용으로 구성되었을까? 아울러 개론서를 저술한 1세대 연구자들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성향과 영향을 받아 한국 사회복지학을 형성하였을까? 한국 사회복지학이 외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측면에서³⁾, 1세대 연구자가 소개한 한국 사회복지학은 얼마나 한국적이고, 나아가 외국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이 같은 일련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저술 내용과 연구자 개인 및 사회복지 상황을 함께 조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의 한국 사회복지학을 충실히 이해하거나 그 정체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의 초기 형성 내용은 물론 당시 연구자의 개인 성향과 사회복지의 사회상을 함께 보아야 한다.⁴⁾

이 연구는 “초기 한국 사회복지학은 어떤 영향을 받아 무슨 내용으로 형성되었는가?”라는 연구주제를 역사주의(historicism) 관점에서 파악하여 한국 사회복지학의 출발점을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 즉 한국 사회복지학 연구자 1세대의 저술을 바탕으로 이들 문헌에서 강조하는 주요 내용, 연구자의 개인 성향, 당시 사회복지의 사회 상황과 특성적 함의 따위를 드러내 밝혀 초기 한국 사회복지학의 형성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별히 이 연구에서 사회복지학 연구자 1세대가 소개하는 개론서를 주요 자료 삼은 것은 이 개론서가 이후 한국 사회복지학을 전개시켜 나아가는 데 발판이 되었다고 분별하고, 여기에 역사주의 관점을 적용한 것은 사회복지학 형성에 연구자가 지닌 개인 성향과 당시 사회복지와 관련한 시대상이 적지 않게 반영되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⁵⁾ 나아가 문학처럼 비평하려는 것은 초기 한국 사회복지학을 마치 한 편의 문학작품이 태동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오랜 친구 대하듯 연구자 개인 사항을 함께 평가하기 위해서이다.⁶⁾ 요컨대 역사주의 관점 비평을 통해 초기 한국 사회복지학 저술에서 연구자가 의도한 바를 시간 흐름에 따라 종합으로 깊게 살펴 연구자 개인의 성향적 및 사회의 시대적 맥락에서 미시에서부터 거시에까지 논의함으로써 초기 한국 사회복지학을 한층 치밀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⁷⁾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역사주의

- 2) 현재 사회복지학 개론서로 한국 연구자의 저술이 수십 종에 이르고, 일본과 미국의 것을 번역한 것이 두세 종에 이르러 한국 연구자의 저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 3) 이 같은 사실은 초기 사회복지학과를 창설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1997)를 비롯해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2003) 및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50년사 편찬위원회(2009)가 간행한 자료집뿐 아니라 한국사회복지학회(2008)가 편집해 낸 자료집에서도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다.
- 4) 예컨대 ‘사회사업학’이 ‘사회복지학’으로 바뀐 것이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학문으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은 점”(이혜경, 1995: 67) 이외의 여러 요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드러냄으로써 한국 사회복지학을 한층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 5) 이 같은 영향은 최옥채 · 黒木保博(2011)가 Foucault의 계보학연구 방법으로 일본 사회복지학의 형성과정을 정리한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6) 이는 비록 문학비평이 이 연구주제를 다루는 데 최적의 방법은 아니지만 문학비평이 저술 내용에 미친 연구자의 미묘한 개인사항을 연구자와 비평가가 서로 불편하지 않으면서 세세히 드러내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회복지학비평은 사회복지연구에서 연구논문과 저술에 관한 비평은 물론 인물비평까지 가능케 하고, 나아가 사회복지학 연구자들의 연구 자세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7) 이 같은 시도를 “문학의 기원, 특히 한 장르의 발생 및 변천에 대한 관심은 역사주의 비평가의 최대 관심사에 속한다.”(이상섭, 2009: 7)는 점과 “비평이 암호를 해독하는 행위이고, 한 작품이 던지는

비평에서 강조하는 요소를 변형하여 분석 틀로 활용했다.⁸⁾

2. 문헌고찰

1) 한국 사회복지학과 그 연구자 1세대

한국 사회복지학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강철희·김미옥(2003: 56)이 강조한 바처럼 양적 팽창과 함께 외형적으로는 응용학문으로서 자리매김을 한 것처럼 보이거나 학문으로 정착하기 위해 관련 지식을 확대 및 강화해야 할 형편이다. 앞선 연구자들이 고민해온 것처럼 학문의 전문성을 심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강철희, 2005). 물론 이 같은 과제를 수행하는 데 사회복지학이 실천학문으로서 지니는 특성, 즉 “시대의 흐름과 사상에 민감히 반응하고, 인접 학문의 이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왔음”(고미영, 1998: 96)을 간과할 수 없다. 한국 사회복지학의 역사적 전개와 관련해 김상균(2009: 27)은 경제개발 3단계를 빌어, 1) 미국 소셜웬학 수입기(1958-1978), 2) 한국형 사회복지학 실험기(1979-2005), 3) 한국형 사회복지학 수출 모색기(2006-현재)로 구분하였다. 이 같은 시기 구분은 철저히 사회복지가 경제와 맞물려 있음에 근거한 것으로 그 타당 여부를 따지는 논의가 필요하나, 어쨌든 한국 사회복지학은 다른 분과 학문과 마찬가지로 서양식 학문을 모방하고 추종하는 특성을 지닌다(김상균, 2005: 5).

한국 사회복지학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대체로 사회복지학 개론서를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복지학 안에서의 영역이나 분야별로 사회복지학을 소개하고 있지만 이는 사회복지학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반면 개론서는 영역이나 분야에서 다른 만큼 상세히 설명하지 못하고 개론에 그치나 한국 사회복지학이라는 전체 풍경을 조망하는 데는 유익하다.⁹⁾ 특히 “개론서는 특정 학문의 구성 주제와 내용 및 범위를 압축 및 요약해 보여줌으로써 그 학문의 정체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체가 된다.”(김용일, 2003: 107)는 점에서 개론서의 활용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세대론이 “각 세대의 사회적 성격의 상위(相違)를 강조하여 거기에서 사회의 역사적 변화의 반영 또는 사회발전의 원동력을 찾는 이론”(네이버 백과사전)이라고 할 때 한국 사회복지학의 1세대는 오늘날 한국 사회복지학을 원형화한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 사회복지학 연구자 1세대는 1940년대 중반 사회복지학과가 대학에 처음 설립된 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 활동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¹⁰⁾ 대체로 이들 1세대 연구자는 처음부터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지 않았고, 거시적

수수께끼를 풀어내고 그것이 지닌 비밀을 훑쳐내는 행위”(정명환, 2003: 15)라고 강조한 점이 거듭 뒷받침하고 있다.

8) 비평에서 “모든 평가기준은 비평가 자신이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이상우·이기한·김순식, 2005)고 강조하기도 한다.

9) 이는 어디까지나 기 출판된 문헌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에 따른 것이므로 온전한 내용으로 사회복지학을 완성하지 못할 수 있음을 열어놓아야 한다.

10) 이런 견해는 단순히 한국에서 처음으로 사회복지학을 교육했던 자들이라는 점에 근거하고, 개론서

인 정책보다는 미시적인 실천 쪽에서 주류를 이루었고, 미국에서 유학했다는 점 특성으로 꼽을 수 있다.¹¹⁾

2) 사회복지학비평¹²⁾

비평은 문학에서 출발해 작가와 독자를 위해 발전하면서 문학의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먼저 비평이 판단과 선택에 의한 평가행위라고 할 때 그 대상이 문학과 관련한 것일 때 문학비평이 된다(이명재, 1997: 17). 즉 문학비평은 “작품을 잘 이해하기 위해 분석 및 설명할 뿐 아니라 가치를 판단하는 모든 활동”(이상우·이기한·김순식, 2005: 9)을 일컫는다. 이렇듯 사회복지학비평은 사회복지학 연구물에 관한 해석과 가치를 분별함으로써 독자는 물론 연구자에게 도움을 주도록 기능해야 한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비평가의 출현이 문학 이해의 발전”(조동일, 1985: 12)을 꾀하듯 사회복지학비평은 사회복지학 관련 연구를 촉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학비평이 “좋은 문학작품의 생산을 위해서 작가들을 향한 우정 어린 충고”(이상우·이기한·김순식, 2005: 11)라고 한 것처럼 사회복지학비평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학 저술 및 연구논문을 해석 및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되 한결 부드럽게 평가하면서 감성으로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럼으로써 연구자 개인에 관한 연구에까지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사회복지학비평이 지금까지 함께 해왔던 동료 연구자가 표적이 된다는 측면에서 자칫 ‘아군과의 싸움’으로 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회복지학 저술이나 연구논문이 언어의 가치를 지님으로써 이를 감상하는 일도 포함해야 한다. 왜냐하면, 특별히 사회복지실천은 예술성을 띠기 때문이고, 이 같은 예술성은 한국사회사업대학협의회(1973)가 『문학과 사회사업』이라는 저술을 낸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¹³⁾ 이뿐만 아니라 “역사연구에서 모든 자료에 대한 사료비평 작업이 필수적이듯”(김수현·정창현, 2011: 177) 한국 사회복지학을 처음으로 형성한 저술을 사료 삼아 시도하는 비평연구에 가치를 둘 수 있다.

사회복지학에서 비평에 관한 내용은 눈에 띄지 않는다.

문학비평의 장악력이 소재에 관한 이해력, 이해에 관한 일관된 해석, 해석을 자기 언어로 번역할 수

를 저술한 자들에 한정된 것이다. 따라서 이들 이외의 연구자들에 관한 세대 분류는 정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 11) 이 같은 특성은 연구자 1, 2세대 세 분과 면접한 결과에서 얻은 것이고, 한국 사회복지학 연구자 1세대와 관련해서는 세대 구분과 실제 연구 현황 및 이들의 연구 내용 따위를 포함해 더욱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 같은 연구는 연구자 1세대와 거의 두절된 상황이고, 2세대마저 교육 현장에서 물러나고 있는 처지라 시급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 12) ‘사회복지비평’이라고도 할 수 있을 터인데, 사회복지지는 제도라는 면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현상에 머무르고, 사회복지학은 현상을 기술한 것으로 대상이 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사회복지학비평’으로 하였다.
- 13) 한국 사회복지학 초기 연구자라고 할 수 있는 김선심, 남경현, 문인숙, 이명홍, 장인협, 조정미, 조성경 교수들이(당시 조정미는 강사) 참여해 사회복지학 교육에 한국 문학작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당시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정한모 교수가 서언을 썼다.

있는 문장력으로부터 나오고(문광훈, 2002: 66), 특히 문학비평이 작품의 부족한 점을 헤집어 비판하기보다 작품이 품는 가능성을 발견해 의미를 부여해주는 것이고(김병익, 2004: 33), 문학작품을 읽고 서로 주고받는 대화의 일종이라는 점(백낙청, 1995: 176) 따위를 강조하듯 사회복지학비평에서도 이 같은 사항들이 크게 다르지 않게 적용되어야 한다. 즉 사회복지학비평은 대상에 관한 분명한 이해를 바탕으로 충실히 해석하여 대상이 지니는 함의를 찾아 서로 논의하는 것이다. 요컨대 사회복지학비평은 사회복지학 관련 저술과 논문을 다양한 관점에서 속 깊은 뜻을 찾아 선행 연구자와 독자 간 소통의 질을 높여줌으로써 사회복지학 연구의 발전을 꾀하는 데 중점을 둔다.¹⁴⁾

한편 Gadamer의 입장에서 비평은 해석학의 이론적 영역과 문예비평이라는 실천적 측면이 맞물려 더욱 강화될 수 있다(신응철, 2001: 20).¹⁵⁾ 아울러 Gadamer의 입장과 다른 Schleiermacher도 해석학과 비평은 서로를 전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최신한 역, 2000: 6).¹⁶⁾ 이 같은 주장을 통해 사회복지학비평은 저술이나 연구논문의 관련 부분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연구자의 진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에 따라 여법하게 평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3) 역사주의 관점

역사주의 관점은 역사주의비평 방법에 근거한다. 문학비평 방법 중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비평의 주류를 이루었던 역사주의는 문학의 역사적·사회적 배경에 중점을 두었고(廣野由美子, 2005: 218), 역사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역사의 존재성을 전제한다(大橋洋一 편, 2006: 67). 즉 역사주의는 과거의 행동에 기초해 인간 역사의 경로를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철학을 의미하고, 나아가 다양한 해석을 알게 됨으로써 과거를 분명히 상대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임옥희 역, 1998: 25-27 재정리). 이는 역사주의가 “인간정신, 정치제도, 법, 언어, 종교, 예술 등의 본질은 오직 그 역사적 기초 위에서만 이해될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은 역사적 삶 속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순수하며 본질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염무웅·반성환 역, 1999: 221)는 사상을 추구한다는 데 근거한다. 요컨대 역사주의는 역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한 텍스트의 해석을 중시한다.¹⁷⁾

14) 예컨대 이 같은 비평을 통해 저술 및 논문 내용은 물론 때로는 연구자의 개인사까지 들춰냄으로써 저술을 낱말하거나 연구논문이 학술지에 무분별하게 게재되는 상황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연구가 연구주제를 표적하여 연구한 반면, 비평연구는 한 연구자가 다른 연구자를 상대를 표적 삼아 연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15) 이와 관련해 신응철(2001: 20-21 재정리)은 비평 영역을 도외시한 순수 이론적 해석학적 논의나 해석학적 이론을 멀리한 실제 비평은 균형 감각을 상실한 절름발이라고 하면서, Gadamer의 ‘선관단’, ‘지평’, ‘지평융합’의 개념이나 Ricoeur의 ‘텍스트’, ‘텍스트의 의미론적 자율성’, ‘상징’은 비평에서 핵심 개념이라고 했다. 이는 Palmer가 “Gadamer의 해석학은 현상학과 이해이론을 상호 결합시켜 문학해석이론을 창조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이한우 역, 1988: 319)고 한 점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16) Gadamer는 Betti, Dilthey 등과 함께 해석의 객관성이나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과학적 및 인식론적 입장을 취했고, Schleiermacher는 Heidegger, Ebling 등과 함께 해석의 보편성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해명하려는 형이상학적 및 존재론적 입장을 고수하였다(신응철, 2001: 56 재정리).

17) 특히 이 같은 역사주의 특성이 ‘객관적 사실의 집합체로서 역사’에서 ‘이야기로서 역사’와 문학적

이와 같은 역사주의에 따라 역사주의비평 방법은 작품이 만들어진 당시 사회와 작가를 역사 맥락에서 작품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둔다. 즉 역사주의 비평방법은 작품과 작가와 사회를 통합적으로 접근한다. 따라서 역사주의의 관점은 저술을 통해 초기 형성된 한국 사회복지학을 살펴보는 데 적절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4) 선행연구 검토

한국 사회복지학의 초기 형성과 그 내용에 관한 상세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고, 사회복지학 개론서 내용을 분석한 연구(복지연구회, 2003)¹⁸⁾ 외에는 한국 사회복지학의 정체성과 교육을 다룬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대체로 이들 연구는 집체적이면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연구자 개인보다는 학회와 같은 조직 차원에서 그 정체성을 규명하려 했고, 이론과 실천과 정책과 행정과 같이 부분별로 나누어 조명하였다. 이들 연구의 특성으로, 1) 한국사회복지학회와 여타 사회복지학 관련 연구소가 주도한 점, 2) 실천 및 이론과 정책은 물론 연구 및 교육과 같이 영역을 구분해 진행한 점, 3) 연구논문보다는 발표논문 성격이 짙다는 점을 들 수 있다.¹⁹⁾ 한편 김연옥(1998), 강철희·김미옥(2003) 등은 개인적으로 한국 사회복지학의 연구와 방법론을 연구하였다.

이 모든 연구들은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한국 사회복지학을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음이 분명하다. 대체로 이들 연구는 한국에 소개되고 있는 사회복지학의 정체성, 교육, 연구, 특성, 동향 따위를 다루며 한국 사회복지학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들 연구는 한국에 사회복지학이 형성된 사회 상황, 연구결과물, 저술을 거론하였다. 특히 한국사회복지학회는 한국 사회복지학을 진단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²⁰⁾ 이처럼 한국 사회복지학에 관한 선행연구의 동향을 고려할 때 이 연구에서 연구자 개인 성향과 사회복지 상황을 반영하여 초기 한국 사회복지학 내용과 이에 영향을 미친 바를 규명하는 것은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텍스트의 특권성을 부정하며 등장한 신역사주의(大橋洋一 편, 2006: 67)에 의해 비판을 받고 있다는 변증법적 측면에서 60여 년 전 출판된 한국 사회복지학 개론서를 비평하는 데 적절한 방법이나 관점이 될 수 있다.

- 18) 한국복지정책연구소와 함께 하는 복지연구회는 '해방후 사회복지학 개론서 내용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초기 세 개론서를 포함하여 2002년까지 나온 총 47권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의 개념을 비롯한 11개 영역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 19) 여기에는 박종우(1992), 이해경(1995), 최균(1995), 최원규(1995), 김규수(1995), 홍경준(1998), 성민선(2003), 홍선미(2003), 김용일(2003), 김상균(2009), 김영중(2009), 양옥경(2009)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박종우(1992: 123)는 초기 한국 사회복지학 교육에 관해 상세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20) 실제로 1995년 한국사회복지학회가 '한국사회복지학을 진단한다'는 주제로, 1996년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사회복지의 토착화를 위한 이론과 실천의 조화'라는 주제로, 한국 사회복지학의 정체성을 논의하였다. 다시 한국사회복지학회가 1998년 '한국사회복지의 패러다임 전환', 2003년 '사회복지학 정체성의 위기와 도전', 2005년 '한국 사회복지의 좌표'와 같은 주제를 검토했고, 한국사회복지연구회가 주도하여 2009년 '한국 사회복지학 50년'이라는 주제를 들어 평가했다.

3. 연구방법

1) 자료수집

한국의 1세대 연구자가 저술한 사회복지학 개론서는 1955년 김학목이 쓴 『사회사업개론』, 1962년 노창섭이 집필한 『사회사업개론』, 1970년 김택준·김영모·이명홍·지윤·강만춘이 낸 『신사회사업개론』, 1972년 구자현이 묶어낸 『사회복지론』 네 권이 전부이다. 이 네 권 중 구자현의 저술은 그가 앞서 낸 세 가지 책을 종합한 것이어서 이 자료수집에서는 제외했다.²¹⁾ 대신 그의 문헌은 이 연구에서 논의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했다. 이렇게 15년 차를 두고 출판된 세 권 저술 내용은 초기 한국 사회복지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 이들 저술을 바탕으로 역사주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했다. 아울러 한국 사회복지학 연구자 1, 2세대 세 분을 면접하여 1세대의 연구 및 현장 활동과 같은 개인사항에 관한 자료를 수집했다. 특히 연구자 개인사에 관한 자료수집은 맹자가 “책을 읽으며 그 책을 쓴 그 사람을 모른대서야 말이 되느냐(讀其書, 不知其人, 可乎)”(경향신문, 2012년 1월 20일)고 강조한 바처럼 저술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작업으로 보아 마땅하다. 이 같은 개인사 자료는 대체로 저자 약력에서 찾을 수 있는데, 연구자의 출신지와 출생연도 따위를 소개하지 않아 이들이 근무했던 기관의 요로를 통해 수집하였다. 아울러 분석을 위해 관련 연구논문은 물론 한국사 연표와 신문을 비롯하여 당시의 상황을 기술한 일반 서적을 참고하였다.

2) 자료분석

문학의 역사주의비평 방법에서는, 1) 원본의 확정, 2) 언어의 역사성, 3) 작가 연구, 4) 작가의 영향, 5) 문학사의 문제, 6) 문학사의 관습 여섯 가지 요소를 강조하였다. 이 방법을 사회복지학 연구에 합당하도록 변형하고 순서를 바꾸어, 1) 원본의 역사적 개요, 2) 연구자의 개인사적 성향, 3) 주요 용어의 역사적 적용, 4) 사회복지학 내용의 역사적 맥락과 같은 틀을 만들어 분석하였다.²²⁾ 이를 다음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21) 구자현은 당초 “사회복지에의 길”이라 칭하여 『한국사회복지사』, 『한국복지행정론』, 『사회개발론』 세 권을 냈고, 이를 1972년 한 권으로 묶어 『사회복지론』이라는 책명으로 출판했다. 따라서 이것을 개론서로 간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22) ‘연구자의 개인사적 성향’과 ‘주요 용어의 역사적 적용’ 순서를 서로 바꾼 것은 먼저 연구자의 형편을 알면 이후 저술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연구자의 학문적 배경과 활동 경력을 알면 그가 강조하는 부분의 내력을 간파할 수 있다.

〈표 1〉 역사주의 관점 요소의 적용

문학의 역사주의 비평 요소 ²³⁾	사회복지학의 역사주의 관점 요소
원본 확정	원본의 역사적 개요 ①
언어의 역사성	주요 용어의 역사적 적용 ③
작가 연구	연구자의 개인사적 성향 ②
작가의 영향	
문학사의 문제	사회복지학 내용의 역사적 맥락 ④
문학사의 관습	

* 이상섭(2009)이 소개한 역사주의 비평 요소로부터 역사주의 관점 요소를 도출함.

즉 이 연구에서는 적용하려는 사회복지학비평 틀에 따라, 1) 세 개론서의 차례에 중점을 두어 이들 각 개론서가 만들어진 경위를 역사적으로 조망하고, 2) 1세대 일곱 연구자에 관한 개인 사항을 개인사 맥락에서 해석하고, 3) 개론서에 나타난 주요 용어를 잡아내 이를 범주화하여 역사 맥락에서 해석하고, 4) 당시 사회복지의 주요 실상을 정치·경제·사회·문화에 근거하여 사회복지학 내용을 역사 맥락에서 해석했다.²⁴⁾ 여기에 전체 분석 내용을 종합하는 통합 기술로 마무리했다.

3) 엄정한 연구를 위한 노력

이 연구는 문헌조사뿐만 아니라 1, 2세대 연구자 세 명을 면접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한층 일목요연하게 이루어져야 했다. 이런 측면에서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몇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첫째, 세 권 저술을 철저히 독해하고, 주요 용어를 뽑아 정리했다. 이 작업이 단순한 것 같지만 용어를 반복해 읽어 범주화함으로써 당시 사회복지 관련 사항을 이해하는 데 유익하였다. 주요 용어를 추출하는데, 예컨대 “고려조와 이조의 교체는 어떠한 사회혁명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노창섭, 1962: 63)에서처럼 상황과 직접 관련하지 않은 경우 제외하였다. 아울러 앞 책에서 다룬 용어는 생략하고, 다루지 않은 용어만을 추출하려는 경향이 있어 주의하였다.

둘째, 추출한 주요 용어를 사회복지학 내용이 될법한 주제를 하위범주 삼아 범주화하였다. 예컨대 사회복지의 ‘이념’, ‘제도’, ‘목표’, ‘대상자’와 같은 주제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추출한 주요 용어를 분석할 때 저술에서의 위치를 반영하였다. 예컨대 ‘윤리관’, ‘형제애’, ‘존엄성’ 따위는 대상자나 제공자에게 해당할 수 있으나 이들 용어는 사회사업가에 관하여 기술하는 분야에서 다루었으므로 제공자로 분류하였다. 아울러 추출한 용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오타나 의미가 불확실한 용어를 원 자료인 저술에

23) 이는 Grebstein이 강조한 ‘역사주의 비평가가 행한 비평의 주안점 6가지’(이명재, 1997: 108 재인용)를 이상섭(2009)이 다시 정리한 것이다.

24) 이때 해석은 연구물과 연구자의 개성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는 인식론적 입장과 앞선 이해[선 판단]를 바탕으로 한 존재론적 입장을 겸함으로써 이 연구에서 내세운 연구주제를 다루는 데 한층 유익하도록 하였다.

서 확인하는 작업을 반복하였다.

셋째, 주제를 해석하는 데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꼼꼼히 반영하고, 비평 원리가 묻어나게 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시종 문학비평가의 비평문을 읽음으로써 비평 감각을 유지할 수 있었고, 한국사 연표를 포함한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여 객관화에 힘썼다.

넷째, 세 권 저술 이외에도 한국 사회복지학 연구 1, 2세대 연구자를 면접해 얻은 자료를 활용하였다. 예컨대 이들과의 면접을 통해 김학묵 저술이 미국사회복지사협회(NASW)가 낸 백과사전을 발췌 번역했음을 알았다.

다섯째, 관련 문헌을 꼼꼼하게 찾아 정리하여 자료를 분석하거나 논의할 때 활용하였다. 예컨대 한 연구자가 같은 주제로 발표논문과 게재논문을 내 이를 구별했고, 참고한 연구논문에 달린 부록을 일일이 대조하며 원문을 찾아 정리했다.

4. 초기 한국 사회복지학

자료분석 결과를 토대로 앞에 소개한 역사주의 관점 네 영역에서 해석 및 평가함으로써 초기 한국 사회복지학을 비평하고, 끝으로 네 영역을 통합 기술하였다.

1) 원본의 역사적 개요

한국 사회복지학 1세대가 저술한 세 권 저술은 <표 2>에 요약한 바처럼 15년 간격을 두고 출판되었다. 15년이라는 거리만큼이나 세 권의 출판 상태도 많은 차이를 보여 당시의 시대상을 연상케 하고 있다. 특히 김학묵 책은 한국전쟁 직후에 나온 것이라 열악했던 인쇄기술을 그대로 반영했고, 이후 노창섭과 김덕준 외 책은 점차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처음 발행된 첫판 중심으로 저술별 원본 개요를 다음 몇 가지로 주제화하였다.

〈표 2〉 저술별 원본 개요

저술 사항	김학묵 책	노창섭 책	김덕준 외 책
출판 연도	1955(4288)	1962	1970
발행처	한국사회사업연합회	새글사(이화서림)	한국사회복지연구소
인쇄소	경향신문사	-	농원문화사
가격	250환	2,500환	2,200원
판형	문고판	국판	국판
쪽 줄 수/쪽	21/188	23/339	32/315
인쇄 상태	활자, 열악함	활자	활자
문자 특성	한문과 고전어투	한문 현대어	한글 현대어
참고도서	참고문헌이 없음	미국 > 일본	저자에 따라 다름

(1) 초기의 조약함

1955년에는 ‘삼성문화사’를 비롯해 ‘학원사’ 및 ‘교양문고간행회’와 같은 대형 출판사나 단체가 등록하여 어느 정도 출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김학묵 책의 조판상태는 매우 거칠고 나빠 열악한 상태이다. 종이 질도 요즘 같지 않아 조심성 있게 다루어야 할 정도이다. 특히 활판 인쇄로 활자 크기가 고르지 않고, 활자의 배열 상태 역시 들쭉날쭉하여 불안정했던 당시 사회상을 엿보게 한다. 이 같은 분위기는 노창섭 책에서도 드러나고, 표지 역시 단색으로 처리되어 간신히 책이라는 명목을 유지하고 있다. 김학묵 책에서는 외래어에 밑줄을 쳐 표기하였는데, 이는 “고전이란 작품만을 가리킴이 아니라 그를 감싸는 종이나 장정까지도 고전스러워야 한다.”(김윤식, 2009: 44)는 맥락에서 사회사업의 빈곤한 터를 내는 것은 아닐까. 이처럼 이들 연구자의 생활 형편이나 처지 역시 적지 않게 힘들었을 터이다. 이는 이들이 비록 관료나 교수로 활동했다고 하지만 당시 사회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었기 때문이다.

(2) 연구자의 사적인 관계성

출판과 판매가 연구자의 사적인 관계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마치 틈새로 흘러 들어오는 빛으로 드러나는 듯하다. 예컨대 김학묵 책은 경향신문사에서 인쇄했는데, 이는 구체적인 관계는 알 수 없으나 그가 보성전문학교 법학부를 졸업하고 관직과 사회활동을 활발히 했던 이력을 고려하면 그의 개인적 관계가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아울러 노창섭 책은 이화서림이 총판매를 맡았는데, 이렇게 한 것은 당시 전국에 사회사업학파가 네 곳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으리라.

사적인 관계성은 이들이 유학한 미국의 영향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김학묵(1955: 7)은 영어 원문 자료를 그대로 인용했으며, 김덕준 외(1970: 115)의 저술에서는 영어 원문을 제시하며 이를 번역해 소개하였고, 영어 단어를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김덕준 외

(1970: 296)의 책에서도 “초기 한국 사회복지 교육은 미국에 크게 의존하였다.”고 밝혔다. 덧붙여 일본의 영향도 적지 않았음이 드러나고 있다. 예컨대 김학묵과 노창섭 저술에서 ‘남구(濫救)’나 ‘누구(漏救)’는 일본 용어를 직수입한 것이고, 실제로 노창섭(1962: 30)은 일본의 교하시(孝橋正一)가 쓴 『사회사업입문』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맺고 있었던 관계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마땅하다.

(3) 불안정한 사회성

특별히 김학묵 책에서 당시 사회가 매우 불안정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이 책의 출판에 관한 정보가 있는 마지막 쪽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딸 죽임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우리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공산침략자를 쳐부수자! 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 날리고 남북통일을 완수하자!”는 ‘우리의 맹세’가 박혀있다. 이는 남북의 긴장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1955년 북한에서는 전기 공급을 제한했음에도 남한에서는 거절하였다. 당시 남한에서는 주요 도시에 양곡을 배급하고, 미국이 4억6천만 달러를 원조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남북의 대치 상황이 매우 긴박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국전쟁 휴전 직후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데, 이는 “시대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를 두고 지식인이라 한다.”(김윤식, 1995: 211)는 점에 비견할 만하다. 김학묵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특별히 지역성을 띄지 않은 충북 음성군 출신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더욱 그렇다. 이뿐만 아니라 책값의 화폐단위가 처음 환(圓)에서 원(圓)으로 바뀌어 이 기간이 정치경제적으로 적지 않게 혼란스러웠음이 분명하다.²⁵⁾

(4) 저술의 꾸준한 발전

최초로 출간된 김학묵 저술과 김덕준 외의 마지막 저술이 나온 기간이 15년이나 되는 만큼 편집과 내용에서도 큰 변화를 보인다. 분량과 인쇄 상태 및 문자와 참고문헌 특성이 그렇다. 김학묵 책에는 참고문헌이 전혀 없는 반면, 노창섭과 김덕준 외 저술에서는 영어와 일본어 참고문헌을 다수 소개하였다. 김학묵과 노창섭 책에서는 많은 한자를 사용하였으나 김덕준 외 책에서는 한자를 사용하되 괄호로 처리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인쇄사업의 발전과도 관련하겠지만, 특히 1955년에 문교부가 ‘외래어표기법 통일안’을 작성하여 제시한 점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뿐만 아니라 1970년에 이르러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예컨대 정부는 북한의 긴장완화 보장과 UN권능(權能) 수락을 촉구하는 정부각서를 UN에 제출했고, 「의료보험법」을 공포했으며, 총인구도 31,460,994명에 달했다. 아울러 포항종합제철을 기공하고, 마산수출 자유지역의 관리청을 신설하고, 경부고속도로를 개통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기반을 잡아가는 상황이었다. 한편 출판사가 매쇄마다 발행한 권수는 알 수 없으나, 노창섭 책에서 1959년에 인쇄된 김학묵 책을 언급함으로써 세 저술은 꾸준히 증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발행 부수는 1970년까지 전국에 10개 대학교에 사회사업학과가 개설된 점을 고려하면 그리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

25) 화폐 단위 환(圓)은 1953년부터 1962년까지 사용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집필 방식에서도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 저술에서 연구자가 인용한 참고도서 상황을 보면, 김학목은 전혀 참고문헌을 달지 않았지만 대부분 미국 문헌에 의존했다. 노창섭은 미국문헌 위주로 참고했고, 김덕준 외 책은 다섯 명이 저술한 터라 각자의 저술 내용에 따라 미국이나 일본 도서를 각기 많고 적게 인용하였다. 한편 일곱 연구자 중 김덕준과 지윤 만이 일본에서 사회사업학부를 졸업했음에도 전체적으로 상당수 일본도서가 인용된 것은 일제강점기 이후 일본의 정치 사회적 영향이라고 보아야 옳다. 요컨대 초기 사회복지학 개론서는 형식면에서 1955년 처음 개론서가 나온 이후, 두 번째와 세 번째 개론서가 출판된 7년과 8년 간격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향을 받아 한국 사회복지학 형성의 결절점을 이룬 셈이다. 이 같은 형식적 변화는 다음에 볼 사회복지학 내용을 뒷받침하는 용어 면에서도 매우 자연스럽게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왔다.

2) 연구자의 개인사적 성향

사회복지학 개론서를 저술한 연구자 일곱 명의 개인사적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는 매우 부족한 상태였다. 여기저기에서 조각난 정보를 비롯해 개인적 관계를 활용하여 연구자들이 근무했던 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분석 결과를 몇 가지 주제로 정리했다.

〈표 3〉 연구자별 개인사

사항 연구자	출신 (생년)	주요 학력	주요 경력
김학목	충북 음성 (1916)	법학 전공 영국 대학연구원 미국 사회사업학 석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한국사회복지학 회장 이화여대 교수 역임
노창섭	경남 함양 (1929)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국 사회사업학 석사 미국 사회학 박사	미국 대학 정치외교연구원 이화여대 교수(사회학과)
김덕준	함북 회령 (1919)	일본 사회사업학 학사 미국 사회복지학 석사	한국사회복지연구소 소장 강남대 교수
김영모	울산 울주 (1938)	사회학학사/석사/박사	중앙대 교수
이명홍	강원 철원 (1929)	영문학 석사 미국 사회사업학 석사	국제사회봉사회 총무 이화여대 교수
지윤	평북 함흥 (1918)	일본 사회사업학 학사	사회사업지도자훈련원강사 이화여대 교수
강만춘	? (1923)	사회사업학 전공 미국 사회사업학 석사	한국사회복지연구소 소장 한국사회복지학교 교수

(1) 일제강점기 출생과 숨은 개인사

김학목이 1916년에 출생한 것을 비롯해 가장 젊은 김영모까지 일곱 연구자 모두 일제강점기에 태어났다. 이들이 이 나라에 사회복지학을 전했던 1950년대 초반 김학목과 지윤과 김덕준이 40대, 강만

춘과 노창섭과 이명홍이 30대로 매우 활력적으로 활동할 시기였다. 한편 이들의 개인사는 널리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저자 약력을 소개하는 부분에 '몽치 자료'가 있을 터인데 사적인 것을 언급하지 않았다. 당시 일본 서적에는 저술가의 출신과 출생연도를 표기하는 분위기가 한국에서도 그렇게 연구자 자신의 개인사를 소개했을 법 한데 전혀 그런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강만춘의 출신지가 북한이라는 것까지만 확인하였는데, 일곱 명 중 절반 이상 연구자의 출신지가 북한이었다. 이미 언급한 바처럼 남북한의 긴장된 관계에서 북한 출신이 남한에 살면서 사회복지학 연구자로서 활동하는 데는 심리적으로 편안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2) 다양한 학력

연구자들이 학부나 대학원에서 전공한 영역은 다양하다.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한데, 당시 한국에 사회사업학과가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 시작은 그렇게 제각각 학문적 배경을 지닐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는 학문의 근대성이 깔려있음이 분명하다. 예컨대 김덕준과 지윤을 제외한 연구자는 법학, 정치외교학, 사회학, 영문학 따위를 전공하였고, 이후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였다. 특히 노창섭은 미국으로 건너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과 사회학을 전공하고,²⁶⁾ 한국에 돌아와 대학에서 잠시 사회복지학과에 적을 두었으나 곧 사회학과로 옮겼다. 따라서 그의 저술이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강만춘은 홍익대학교를 졸업했는데, 그가 다닐 무렵 홍익대에는 법학부와 문학부만 설치된 점을 고려하면 역시 사회복지학이 아닌 다른 분야를 전공했음이 분명하다. 이처럼 자유분방한 학문적 배경이 사회복지학 연구자로서 지식을 두루 섭렵하는 데는 유익한 점도 있었겠지만 깊이 파고드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3) 해외유학과 기독교

김영모를 제외한 여섯 연구자가 해외유학과로 꼽히는데, 유학한 나라는 미국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김덕준과 지윤이 일본에서 유학했는데, 김덕준은 다시 미국 대학원에 진학하여 사회복지학을 공부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김학목과 김영모를 제외한 나머지 연구자는 유학 이후에도 미국에 연고를 두어 지냈다. 한편 연구자들은 기독교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같은 현상은 1950년대 사회사업학과를 설립한 네 대학 중 서울대를 제외한 세 대학이 기독교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과 일맥하고 있다.²⁷⁾ 이뿐만 아니라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 정부는 목사가 미국을 입국하는 데 자유롭게 '배려'함으로써 기독교인의 무분별한 출입국을 남발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다.

26) 동아대학교를 설립한 정재환이 1959년에 쓴 『구미교육시찰 일지』에는 노창섭이 Rouge주립대학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고, 사회학과 사회사업을 전공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7) 이와 관련하여 김덕준 외(1970)의 책에서 1958년 한국그리스도교회 신학교에 사회사업 전공을 설치했음을 밝힘으로써 1947년 기독교사회사업학과의 이화여자대학교를 비롯하여 1953년 강남대학교(중앙신학교)와 1959년 서울대학교 총 4개 대학이 있었다.

(4) 연구자 각자의 영역 강조

연구자들은 저술에서 각기 자신의 전문 영역을 과시하였다. 예컨대 김학묵은 그의 저술에서 사회사업행정을 강조하며 꼼꼼하게 다루었다. 이는 그가 보건사회부 관료로서 활동한 경력과 관련하고, 특히 하상락 및 백근칠과 함께 1955년부터 미국에 2년간 유학했는데, 이때 사회사업행정 분야로 선발되었다.²⁸⁾ 한편 노창섭과 김영모는 사회학 전공자답게 각기 눈에 띄게 사회학자들의 주장을 인용했거나 '사회'라는 접두어를 많이 사용하였다. 이외에도 세 번째 공동 저술에 참여한 김덕준은 '집단사회사업 방법', 이명흥이 '개별사회사업방법', 김영모는 '지역사회조직사업방법', 지윤이 '사회사업 역사', 강만춘은 '사회행정'을 집필하였다. 특히 노창섭(1962)은 그의 저술 서문에서 학문적으로 자리 잡지 못함을 토로하면서 학문과 기술의 겸비를 강조하였고, '사회사업행정', '연구' 및 '사회행위'를 생략했다며 아쉬워하였다.

3) 주요 용어의 역사적 적용

각 저술에서 추출한 주요 용어는 총 2,606개에 이른다. 김학묵 책에서 496개, 노창섭 저술에서 939개, 김덕준 외 책에서 1,171개를 뽑아냈다. 이 숫자는 각 저술의 분량과도 비례하는데, 앞선 <표 2>에 정리한 바처럼 김학묵 책보다 노창섭 책이 두 배 이상, 노창섭 책보다 김덕준 외 책이 1.5배 이상 분량이 많아졌다. 저술에서 추출한 주요 용어에 관한 역사적 적용을 몇 가지로 요약했다.

(1) 한자와 영어와 한글 혼합 및 단독 사용

세 저술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서로 다른 점이 적지 않다. 예컨대 김학묵 책은 구어체성이 강하고 한문 전용으로 보아 무방할 정도로 한자를 많이 사용하였다. 이보다 7년 후에 나온 노창섭 책은 활판 인쇄 상태가 웬만큼 안정되었고, 띄어쓰기를 제대로 했으나 여전히 한자를 혼용하였다. 아울러 논조가 강하고, 어투가 현대어로 바뀌었다. 나아가 '지역사회조직사업'을 '향당지도사업'으로 표기함으로써 김학묵 책을 참고한 점이 엇보일 뿐 아니라 현대어화 함과 동시에 어휘 사용의 폭이 넓어졌다. 그러면 서도 여전히 "전 국민에 평등한 의무(役務)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노창섭, 1962: 29)며 고어투를 완전히 씻어내지 못한 면도 없지 않다. 이보다 8년이 지나 등장한 김덕준 외 책은 한글 중심으로 집필되었고, 외래어는 「 」로 표시했다. 이는 1970년 문공부가 '한자 1,200자 제한사용'을 시책으로 낸 것과 관련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다섯 저자들의 주장이 앞의 저술에 비해 더욱 강하게 드러났고, 인용 문헌이 다양해지고, 사회복지를 설명하기 위한 사회상을 더욱 세세하게 묘사하였다. 나아가 '사회복지학'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고, 학술지가 발행되었음을 드러내기도 하였다.²⁹⁾

한편 영어 단어 표기에서 같은 용어를 연구자마다 달리 번역하였다. 예컨대 노창섭은 'Leader',

28) 특히 최경석은 편지글에서 김학묵이 "사회복지사다운 성격을 지녔고, 대학교에 줄곧 교수로 재직했다면 많은 업적을 남겼을 것"이라고 술회하였다.

29) 1955년에 나온 「중신학보」 창간호를 언급하였다.

‘Guide’를 ‘지도자’로, ‘in service-training’을 ‘현업훈련’으로 번역하였다. 이는 사회복지학이 학문적으로 자리를 확고하게 잡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처지라고 할 수 있다. 김덕준 외 책은 다섯 명이 저술에 참여함으로써 취지가 겹치는 부분이 있고, 문맥이 다르기도 하고, 영어를 번역한 용어를 달리 표기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누군가 저술의 전체 내용을 다듬지 못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

(2) 아동 및 가족에의 중점

노창섭 책이 나왔던 1960년 전후에는 남한 인구의 70-80퍼센트가 농민이었고, ‘강통문화’, ‘야매품’, ‘사과계짜’ 같은 유행어(김진송, 2006)를 통해 당시 사회가 어수선하고 빈궁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³⁰⁾ 이 같은 사회상과 함께 ‘사업/분야’, ‘임상실천/보조업무’, ‘조직’의 주요 용어를 보면 아동과 가족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이는 당시 한국전쟁을 치른 후 사회상을 전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아 마땅하다. 예컨대 1955년에는 전쟁고아를 수용 및 교화하기 위한 ‘국제직업소년학교’를 설치하였고, 전국의 인구는 총 21,526,374명에 달하였으며 뇌염이 발생하여 761명이나 사망하였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 이 같은 사회상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정부나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어느 분야보다도 아동을 비롯한 가족에 중점을 두었을 것이 당연하고, 이를 “당시 사회복지라고 하면 대부분 고아를 돌보는 고아원이 주류를 이루었다.”(한국사회복지학회 편, 2008: 81)는 류상열의 회고가 뒷받침한다.

(3) 외원 및 종교 기관의 참여

1세대 연구자들이 세 권 저술을 출간해낸 동안 외국 기관과 종교 기관의 참여가 많았다. 특히 한국 전쟁 이후 전제민, 피난민을 돕기 위해 미국을 위시한 자유진영 10여 개 나라의 종교, 아동, 의료, 문화, 구호 따위의 외국 민간단체가 각기 목적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였다(구자현, 1972: 277). 실제로 1970년 당시 가정복지사업을 펼치는 민간기관은 총 10개 기관이었고, 이 중에서 9개 기관이 외원에 의해 운영되었다(김덕준 외, 1970: 242). 이들 9개 기관이 캐나다유니테리안봉사회를 비롯하여 크리스찬 사회복지회, 대구메노나이트, 양친회, 기독교아동복지회, 한국루터란드리아코니아 등이었는데, 이들 이름만으로도 종교 기관의 참여가 두드러졌음을 엿볼 수 있다.

(4) 다양한 인접 학문

세 저술이 공통적으로 사회사업을 소개하면서 프로이드심리학을 포함하여 사회복지학으로부터 다양한 인접 학문을 강조하였다. 정치학이나 경제학은 물론 유전학, 인류학, 교육학, 역사를 바탕으로 사회사업이 형성됨을 피력하였다. 특히 김덕준 외(1970: 8) 책에서는 “사회사업의 주요 대상을 인간의 퍼스널리티의 결합에서 찾기 때문에 사회학, 심리학, 교육학, 정신분석학과 같은 행동과학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강조하였다. 이런 면에서 과연 지금의 사회복지학 교육이나 연구에서 주변 분야를 관련시키는 정도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지적할 수 있다. 한편 이렇게 다양한 인접 학문을 예시 및 강조

30) 당시에는 자본과 시설 모든 것이 미비하기도 했지만 생산 원료를 구하기 힘들어 국산품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강통이 좋은 공산품 원료로 활용되면서 강통으로 만든 물건이 유행하였다(김진송, 2006: 146).

한 것이 이후 사회복지학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발목이 잡히는 형국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자기 영역을 분명히 드러내지 못하고 주변을 보이려는 노력이 자칫 영역이 서로 엉켜 붙거나 내 영역이 주변에 빨려들어 더욱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³¹⁾

(5) 용어의 근대성

용어를 놓고 근대성을 따지려는 것은 “문자가 인간다움의, 문화창조의 기초요건”(임형택, 2000: 285)이라는 데 근거한다. 아울러 근대성은 ‘개화’와 ‘개량’과 ‘계몽’이란 패러다임에 더욱 강력한 힘을 실어야 하는 쪽으로 변해갔고, 바로 이때 우리는 서구의 근대가 개입되는 순산을 맞이하였다(김진송, 1999: 13). 이처럼 ‘향당’, ‘倫敦’, ‘꼬을’, ‘아후리카’, ‘그를 리더’, ‘부르좌지’와 같은 표현을 통해 근대성을 들여다볼 수 있다. 근대성의 시기를 1910-1960년으로 본다면 대부분 지식인들이 서구의 영향을 받아 구습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을 목도할 수 있다. 즉 이들 용어를 사용한 연구자들의 마음 한 구석에는 신학문을 한다며 으스스대고 빠기는 ‘가오쟁’이 풍겨난다. 이는 해외에서 얻은 연구자들의 지식 및 경험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이들의 환희 사이 공명(共鳴)이리라. 이 상황을 문학에서 맞추어 짚어볼 수 있는 최남선과 이광수, 김동인과 염상섭이 “신학문의 열풍에 휩싸여 일본으로 건너가 근대교육을 받았다.”(김윤식, 1987: 24)는 점에 견주어 볼 수 있다. 여기에 앞서 언급한 기독교가 적절히 부추긴 셈인데, 이는 같은 시기 일본에서 기독교인은 ‘잘 교육받은 신사’(Gulick, 2011: 116)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사회상을 통해 드러나기도 한다.

4) 사회복지학 내용의 역사적 맥락

노창섭은 김학묵 책을 인용했음을 밝혔고, 참고문헌을 장별로 미주 처리함으로써 분명히 하였다. 역사부터 소개하며 한국 것을 다룸으로써 ‘구휼사업’과 같은 한국적 용어를 사용했다. 한편 김덕준 외 책 서문에서는 노창섭 저술을 이어 『신사회사업개론』 임을 강만춘이 대표하여 밝혔다. 특히 이 저술의 차례를 보면 앞의 두 저술에 비해 전체 내용을 한층 체계화했음을 가늠할 수 있다. 이들 저술을 구성하는 주요 내용의 역사적 맥락을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하였다.

31) 실제로 김기태는 “나름대로 학문의 토대를 넓게 잡아 높게 쌓을 수 있도록 인접 분야 학문의 지식과 이론을 습득해 보려는 노력을 해보았지만, 여전히 아쉬움은 남아 있다.”(한국사회복지학회 편, 2008: 31)고 회고했는데, 이는 ‘내 것’과 ‘네 것’을 분명히 구분 및 정리하지 못하고 ‘네 것’에 ‘내 것’이 쓸렸거나 빨려든 것은 아니었을까.

〈표 4〉 영역에 따른 저술별 주요 내용

사항 \ 저술	김학목 책	노창섭 책	김덕준 외 책
사회사업 개념	사회사업 의의 사회사업 주체/대상	사회사업 개념 사회사업의 주체/객체 타 학문과 관계	사회사업 의의 사회사업 개념
사회사업 역사	자선사업 자선조직화운동 인보운동 공적책임 사회복지에의 발전	구미사회사업 역사 한국 사회사업 역사	한국 사회사업사 구미 사회사업사
사회사업 방법	개별지도사업 집단지지도사업 향당지도사업	케이스 워크 그룹 워크 커뮤니티 오오가나이제이손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사회조사 사회사업행정 사회행동
사회사업 분야	아동복지사업 가족사회사업 의료사회사업 정신사회사업 학교사회사업 보호관찰사업	가족사회사업 아동복지사업 의료사회사업 정신사회사업 교정사업 학교사회사업	생활보호사업 아동/청소년복지 가정복지 노인복지 심신장애자복지 의료사회사업 산업사회사업 교정사업 재해구호사업 기타 사회사업분야
기타 영역	사회사업 행정 특징 사회사업 행정 내용 사회사업 조사/통계 국제사회사업 사회사업가 양성 사회사업 전문직 인간행동 이해	사회사업의 전문직업성 사회사업 철학/목적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사업

(1) 미국 사회사업학으로부터의 영향

한국 사회복지학을 비평해야 할 터인데, 한국에 관한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 연구자들이 미국 사회복지학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김학목(1955: 99-100)은 아동복지와 관련해 미국의 ‘백악관회의’를 한 절로 다루었고, 노창섭(1962: 35)은 미국 사회보장을 설명하는 그림을 영문 원본 그대로 소개하였다. 이 같은 형편은 김학목(1955: 147-148)이 한국사회사업교육에서 가장 애로가 되는 것은 교수진, 응모자, 교재 문제이고, 우리말로 된 교재가 희소함을 호소한 점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아울러 김덕준 외 책의 ‘사회사업 분야’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실상을 언급한 후, 한국의 상황을 덧붙여 소개하였다. 이는 한국의 사회복지가 시초상황이기 때문이다.

저술에서 한국의 실상이 있을 법 함에도 김학목 책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예컨대 소년범죄자, 여성범죄를 다루면서 일본 현황을 언급했으나(김학목, 1955: 185), 한국 실상은 전무하다. 이는 당시 합당한 자료를 미처 생성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이런 이유로 미국의 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보건사회부 고위직에 근무했던 김학목이 당연히 다루어야 할 한국의 사회복지 관련 자료를 일절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편 노창섭 저술에서 참고 문헌 중 한국 책은 역사서가 주종을 이루고, 일본 책은 사회복지 관련 책이었다. 이는 그가 사회복지학을 소개하면서 미국을 포함해 일본의 사회복지학으로부터 적지 않게 영향을 받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2) 정교한 내용

김학목 책은 비록 미국 사회복지사협회의 백과사전을 발췌·번역한 것이라고 하지만 독일 연구자의 정의를 인용한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이 매우 정교하게 정리되어 낯은 내용임에도 지금의 저술에서 볼 수 없는 수준이다. 예컨대 사회사업의 개념을 “개인, 가정, 집단, 향당의 결합을 제거하여 사회생활의 발전을 도모하며 그 결합을 예방하여 우리의 생활을 윤택케 하여 인류생존의 완성을 기하는 조직적이며 연속적이고 합리적인 제 활동”(김학목, 1955: 8)으로 풀었다. 아울러 사회사업과 사회복지가 출현하는 과정을 매우 정확히 기술하였다. 특히 사회복지를 경제정책의 하위로 두는 경향이 강해 범상치 않은 울림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김학목(1955: 50)은 자신 만만하게 Community를 “우리나라의 향약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향당이라고 번역한다.”고 정리했다. 노창섭은 사회사업 철학과 목적을 애써 강조했고, 외국 연구자의 이름을 표기하면서 이들의 성을 포함해 완전하게 기술했다. 그런가 하면 김덕준 외 책에서는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을 구분해 정리했고, 참고문헌과 찾아보기를 두어 독자들을 이롭게 했다. 특히 여러 저자가 집필에 참여했음에도 책을 읽어나갈수록 추출하는 용어가 줄어들었는데, 이는 앞서서부터 각 저자들이 내용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정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의 두 권 저술에 비해 용어가 세련되게 다듬어진 것은 연구자들이 정교화를 위해 노력한 점으로 간주할 수 있다.³²⁾

(3) 실천 중심화

<표 4>에 드러난 바처럼 세 저술이 공통적으로 사회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사회복지실천 중심으로 전체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예컨대 사회사업 방법으로 앞 두 책에서는 개별, 집단, 지역사회 세 가지로 분류했으나 세 번째 김덕준 외 책에서는 이외에도 ‘사회조사’, ‘사회사업행정’, ‘사회행동’을 덧붙였는데, 이는 실천을 더욱 강화한 구조로 보아야 한다. 실제로 강만춘은 미국 사회복지사협회의 주장을 빌어 “사회사업행정을 방법론으로 본다는 점에서 행정을 기술로 취급하는 경향이 짙다.”(김덕준 외, 1970: 187)고 강조하였다. 어쨌든 이 같은 현상은 당시 사회사업학이 확대 및 분화하기 전이었다.

32) 특별히 이와 관련하여 함세남은 “(당시 사회사업학과) 교과과정은 지금의 학부 교과과정으로도 손색이 없는 교육과정이었다.”(한국사회복지학회 편, 2008: 194)고 회고했는데, 이는 교과과정뿐 아니라 교과내용 면에서도 동일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국제교류와 전문직 강조

노창섭은 사회사업의 정의를 소개하면서 서구와 일본 및 국제연합의 자료를 활용해 국제교류가 필요함을 우회해서 강조하였다. 이처럼 사회사업에서 국가 간 학술대회 따위를 통한 국제교류를 일본의 저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1923년 나마에 타카유키(生江孝之)가 쓴 『사회사업요강』이나 1930년 운노 코토쿠(海野行徳)가 지은 『사회사업학원리』에서도 국제사회사업이라는 용어와 함께 국가 간 교류를 강조하였다(최옥채·黑木保博, 2011: 163). 저술의 출간 시기를 따졌을 때 일본이 한국의 상황보다 30년 이상 앞섰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터이고, 이를 한국 연구자들이 저술에서 일본 저술을 참고했다고 밝힌 점이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김덕준 외 책에서 각 방법론에 관한 집필진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작업해 깊이 있는 내용으로 형성되었다. 이는 앞의 두 단독 저술이 지니는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5) 교과 내용 및 구조의 확대와 다양화

김학목 책과 노창섭 책이 발간된 시차가 7년이고, 노창섭 책으로부터 김덕준 외 책까지는 8년 거리를 둔다. 총 15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면서 각 저술의 내용과 구조가 점차 확대 및 다양화되었음이 드러난다. 실제로 <표 4>에 요약한 바처럼 김학목 책은 김영모가 미국의 백과사전을 속음질했다고 지적한 점에 걸맞게 단조로운 구조이다. 한편 노창섭 책은 차례를 대분류화하지 않은 면이 있지만 김학목 책에 비해 새로운 면이 있다. 예컨대 세 가지 방법을 '사회사업 방법'이라는 영역에 한 데 묶지 않고, 한국의 사회사업 역사를 매우 상세히 정리한 점이 새롭다.³³⁾ 한편 김덕준 외 책으로 넘어오면 한국의 사회사업 역사는 물론 1961년과 1970년 각기 제정된 「생활보호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과 같은 사회복지 관련법을 정리해주었다. 이뿐만 아니라 앞의 두 저술에서는 사회사업 방법으로 세 가지만을 강조했는데, 김덕준 외 저술에서는 이외에도 사회조사와 사회사업행정과 사회행동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사회사업 분야도 앞의 두 저술에서는 각기 여섯 개 분야만을 소개했는데, 김덕준 외 저술에서는 생활보호사업을 비롯하여 열 개 분야로 넓혀 정리하며 발전을 꾀하였다.

5) 통합해 본 초기 한국 사회복지학

연구자 1세대는 당시 사회복지 실상을 씨줄 삼고, 자신의 개인사를 날줄 삼아 한국의 초기 사회복지학을 직조했다. 단연 씨줄에는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이, 날줄에는 연구자 개인의 학력을 포함한 이력이 밀자리가 되었음은 자명하다. 여기에 연구자 개인사 역시 일제강점과 한국전쟁으로부터 쓰라린 고통의 가족사와 함께 사회 상황으로부터 만만치 않게 영향을 받았음이 분명하다. 이런 마당에 나라 잃은 설움을 안고 김덕준과 지윤과 강만춘이 북한에서 내려왔고, 노창섭과 김영모가 한반도 남쪽 끝

33) 사회사업 방법과 관련하여 김학목(1955: 24)은 저술에서 '사회사업행정', '사회사업조사통계'를 방법에 포함하려는 당시 미국의 경향을 언급하였다.

자락에서 올라왔으며, 김학묵과 이명홍이 비교적 가깝지만 충청도와 강원도 산골에서 나와 서울 땅에 합류했다. 요컨대 연구자 개인의 기량을 온전히 발휘하는 데는 장애요인이 있었다고 보아 마땅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1세대 연구자들은 한국 사회복지학의 학격(學格)을 어느 수준으로 세워놓았을까?

저술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당시나 지금이나 “돈은 귀신도 부린다.”는 자본주의 이치 속에 당시 사회상을 고려할 때 결연한 의지로 임했음이 분명하다. 암울했던 정치 상황과 참담했던 경제 형편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1955년 정부는 직제를 고쳐 보건부와 사회부를 통합해 부흥부를 발족하였다. 이때 재무부는 ‘외자도입법안’을 마련하였고, 당시 국민 1인당 GNP는 44,699환이었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 결국 많은 국민이 사회사업의 대상자가 되어야 할 상황이었고, 이런 사정은 조선 정조시대의 급박했던 실상과 무관하지 않다.³⁴⁾ 그럼에도 더욱 안타까운 것은 세상이 뜻 모를 위정자들의 정치적 속셈에 이리저리 휘둘러야 했던 점이다.

이뿐만 아니라 1954년 무렵 서울의 한 대학은 “영향력 있는 교수들은 미국인 선교사들과 밀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고, 미국유학을 마치지 않으면 행세하기가 어려운 울타리 속 같았고, 서양 냄새에 빨리 절어야만 당당해지는 곳”(정연희, 1992: 12)으로 묘사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은 “1960-1970년대 도미해 역경을 딛고 ‘아메리칸 드림’을 일군 사람들이 대부분 한국에서 받은 교육을 밀천 삼아 의사, 교수, 간호사, 변호사, 특수학교 교사, 사회복지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로 뿌리를 내렸다.”(경향신문, 2011년 10월 4일)는 일상으로 이어졌다. 요컨대 기독교와 미국의 영향력은 당시 인텔리들에게도 적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세 저술은 무늬로는 볼품없어 보는 이를 민망케 하나, 연구자들의 결연한 노력으로 굴곡져 불안정한 사회를 이겨내며 꾸준히 발전시켜 나아갔다. 이들은 15년이라는 거리를 7년과 8년으로 나누어 달리며 오늘날 한국 사회복지학의 터전을 일궈낸 것이다. 사회복지학에 익숙한 바가 없어 미국의 것을 통째로 베껴 소개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의 실상을 조사하여 알리고, 전체 내용을 한층 더 체계화하여 대학 교재로서 손색이 없게 만들어냈다. 이는 앞장서서 낸 길을 뒤에 따라간 이들이 더욱 다듬어 간 노력으로 얻은 결실이라.

사회복지학 1세대 연구자들은 시대적으로 매우 불운한 이력을 기록했지만 다방면에서 공부하고 활동한 문명적(근대적) 전력으로 자신들의 전문 영역을 가차(假借)함 없이 고스란히 드러내 보였다. 연구자들은 연구자답게 사회복지학을 정밀히 살폈다. 대부분 이들은 해외에서 공부하고 돌아왔고, 종교는 기독교에 깊이 뿌리박고 있어 당시 사회사업이 외원기관의 주도로 이루어진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다. 나아가 각자 나름대로 중점을 두어 연구한 영역이 따로 자리를 잡았는데, 자신들의 활동과 연구 경험에 따라 강조하는 부분이 달랐다. 특히 김학묵은 ‘미네소타대 삼총사’답게 ‘사회사업행정’ 교과목으로 자리를 잡았다.

초기 저술은 한자를 많이 사용하였고, 1970년에 들어서서야 한글에 한자로 음을 달아 기술하였다. 연구자들은 저술에서 기독교로 무장한 외국 기관의 도움으로 아동과 가족에 집중하였는데, 이는 해외

34) 실제로 조선 정조대에 “아이의 고기를 먹은 자들을 붙잡아 문초하니, 아이를 죽여서 먹은 것이 아니라 죽은 아이를 주워서 구워먹은 것이라고 항변하니, 아 어찌 차마 들을 수 있는 말인가!”(김훈, 2011: 207)라며 통탄할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었다.

에서 건너온 원조기관이 대부분 기독교 단체에 의해 운영된 점과 일치한다. 아울러 일제의 강압과 전쟁의 혼란 속에서 묻어난 사회 상황으로부터 사회사업이 요동치는 바람에 아동과 가족에 집중했던 것이고, 여기에 철학을 비롯한 정치학과 경제학 및 사회학과 심리학과 같은 주변 학문의 배경을 중시한 데 힘입은 바가 적지 않다. 어쨌든 사회사업 현장에서는 원자(願者, 클라이언트)들의 욕구에 대응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꼬을을 세우고, 쏘시얼 케이스 워어크와 구를 워어크와 커뮤니티 오오가나이제이션을 방법론으로 적용하여 프로페셔널 아푸로치를 구사하였다. 런던과 덴마크를 倫敦과 丁抹로 표기하고, 스웨덴을 쉬든이라며 歐羅巴와 亞細亞를 주목하며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결국 한국의 초기 사회복지학은 미국의 사회복지학을 매우 정교하게 정리해 들여왔고, 이는 사회복지 실천에 중점을 두었으며, 교과 내용을 확대 및 다양화하였다. 물론 농약 병에 주스라고 써 붙인다고 농약이 주스가 아니듯 초기에는 온전히 체재(體裁)를 갖추지 못했고, 너저분하고 자질구레하여 번쇄(煩瑣)함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비록 형식은 조악하나 내용은 매우 밝고 치밀하여 온고지신(溫故知新)하게 한다. 예컨대 김학목(1955: 3)은 유독 독일 연구자에 주목하는 가운데, 알브레히트(Albrecht) 교수의 정의를 빌어 사회사업을 “국가, 도시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경제적 내지 사회적으로 불우한 계급을 구호하는 임의적 활동”이라고 강조함으로써 사회복지에서도 굳이 실천에 중점을 두었다. 이후 15년이라는 기간을 달리며 끝내 한국의 사회복지 관련법을 저술에 실음으로써 사회복지학의 면모를 갖추었다.

5. 논의와 제언

문학비평을 사회복지학의 연구방법으로 적용해 한국 사회복지학의 초기 형성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 과정을 통해 사회복지학에서 비평연구가 탄탄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비평연구 방법을 활용한 후속연구가 나와야 할 것이다. 예컨대 저술이나 연구논문에 대한 비평뿐 아니라 인물 비평까지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문학비평 수준에 버금가는 글쓰기가 따라주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초기 사회복지학 비평에 관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를 통해 드러난 의문을 제기하며 몇 가지를 논의 및 제언하였다.

첫째, 세 권 저술에 밝힌 내용은 과연 한국 사회복지학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비록 이 연구가 1세대가 저술한 세 권에 한정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당시 글이나 말이나 어떤 형태로든 한국 사회복지학에 관한 내용이 있었다면 이는 적극 검토 및 거론되어야 한다. 바로 이점이 이 연구의 한계이자 초기 한국 사회복지학의 운명이었다. 어쨌든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생존하고 있는 1세대나 2세대 연구자로부터 고명한 의견을 청취하여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초기 한국 사회복지학 형성에 기독교가 미친 영향은 질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의문이다. 예컨대 빈곤에 관한 논의나 빈곤한 자를 위해 개입하려고 할 때 빈곤이라는 현상을 기독교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만약 기독교인이라면 가난은 단순히 궁핍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구걸에 의존하고, 괴롭힘과 고난을 당하고 더 이상 기댈 곳이 없고, 겸손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태”(김양재, 2006: 169)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 사회복지에 어떤 방식으로든 기독교가 영향을 미쳤다면 시기를 따지지 말고 사회복지의 가치와 기독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려는 목표를 맞대어 연구해야 한다. 게다가 사회복지 활동이 기독교를 근간으로 이루어졌다면 이 같은 연구는 사회복지학 연구자의 지상 과제임이 분명하다.

셋째, 한국의 사회사업 지원에 참여한 외국 원조 기관이 초기 한국 사회복지학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을 규명할 수 있는 연구가 절실하다. 이 원조 활동은 곧 사회복지실천 프로그램이었을 터인데, 사회복지실천의 요체는 바로 프로그램일 것이므로 현장의 실상을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이를 복원하는 연구는 지극히 당연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한국 사회복지역사를 한층 치밀하게 연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넷째, 초기 한국 사회복지학에 영향을 미친 미국과 일본의 사회복지학 역학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작용했는지 의문이다. 미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밀려들어왔다고도 할 수 있으나 이미 그 전에 일제강점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식과 행동 기저에 왜색을 바탕으로 깔고 있었고, 아울러 일부 연구자들이 일본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각각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제도가 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과 일본 사회복지학이 한국에 들어올 때 어떤 명분으로든 1세대 연구자들이 문지기 역할을 했음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한국의 사회복지제도와 사회복지실천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와 함께 미국과 일본 사회복지학에 관한 사회사적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다섯째, 이제 이 연구에서 살펴본 초기 한국 사회복지학이 이후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즉 한국 사회복지학이 시간을 두고 사회상과 연구자 개인사의 역동적 변화에 따라 달라진 사회복지학 내용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제도 측면에서 사회복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연구를 설계해야 한다.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처럼 사회사업 역시 변화했고, 지금의 사회복지도 장차 변화할 것은 당연하므로 사회복지학의 본질을 캐물으며 신중히 나아가야 한다. 예컨대 ‘사회사업학’이 ‘사회복지학’으로 바뀔 때 단순히 용어만 바뀐 것이 아닐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달라진 내용과 그 내용이 품는 의미를 깊게 살피는 연구가 필요하다.³⁵⁾ 아울러 한국 사회복지학의 초기 개론서에서 사회복지학과 부분적으로 함께 하는 다양한 인접 학문을 강조한 점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교육 및 연구에서 얼마나 적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인접 학문을 무시해도 되는지 이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여섯째, 세 권을 한 연구에 포개 엮어 동시에 이끌어가는 작업은 무리였다. 그래서 각 저술과 연구자 개인사에 관한 연구와 저자들 간 간격에서 있을 법한 특성을 더욱 상세하고 충실히 진행하지 못한 점은 이 연구의 한계이다.

35) 이와 관련하여 신섭중은 일본의 시마다 케이이치로(嶋田啓一朗)의 주장을 빌어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광의의 사회복지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한국사회복지학회 편, 2008: 99)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과 과정은 한국 땅에서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참고문헌

- 강남대학교사회복지학부. 2003.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50년사』.
- 강철희. 2005. “사회복지학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4): 147-175.
- 강철희·김미옥. 2003. “한국 사회복지학 연구방법론에 대한 분석과 고찰: 질적 연구방법의 유용성 제고를 위한 논의”. 『한국사회복지학』 55: 55-81.
- 구자현. 1972. 『사회복지론』. 서울: 한국사회복지연구소.
- 고미영. 1998. “탈근대주의 시대와 사회사업실천”.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95-107.
- 김규수. 1995. “사회복지실천현장과 대학교육간의 산학협동체계 요인설정”.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43-62.
- 김덕준·김영모·이명홍·지윤·강만춘. 1970. 『신사회사업개론』. 서울: 한국사회복지연구소.
- 김병익. 2004. 『글 뒤에 숨은 글』. 경기 파주: 문학동네.
- 김상균. 2005. “한국사회복지학의 좌표”.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13.
- 김상균. 2009. “한국사회복지학의 역사적 평가: 한국 사회복지 변천과 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9-44.
- 김수현·정창현. 2011. 『제국의 억압과 저항의 사회사: 사진과 엽서로 본 근대 풍경』. 서울: 민속원.
- 김양재. 2006. 『큐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서울: 두란노.
- 김연옥. 1998. “우리나라 사회복지학 연구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에 실린 경험분석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35: 85-105.
- 김영중. 2009. “사회복지행정: 학문적 흐름과 역할에 대한 평가와 전망”.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41-164.
- 김윤식. 1987. 『염상섭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윤식. 1995. 『김동리와 그의 시대』. 서울: 민음사.
- 김윤식. 2009. 『탄생 백주년 속의 한국문학 지적도』. 서울: 서정시학.
- 김용일. 2003. “사회복지학 교육을 통한 정체성 확립”.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85-115.
- 김진송. 1999. 『서울에 땀스홀을 許하라』. 서울: 현실문화연구.
- 김진송. 2006. 『장미와 씨날코』. 서울: 푸른역사.
- 김학묵. 1955. 『사회사업개론』. 서울: 한국사회사업연합회.
- 김훈. 2011. 『흑산』. 서울: 학교재.
- 노창섭. 1962. 『사회사업개론』. 서울: 새글사.
- 문광훈. 2002. 『시의 희생자, 김수영』. 서울: 생각의나무.
- 박종우. 1992. “한국 사회복지학교육에 관한 일고찰”. 『사회복지연구』 4집: 113-134.
- 백낙청. 1995. 『민족문화와 세계문화 II』. 서울: 창작과비평사.
- 복지연구회. 2003. “해방 후 사회복지학 개론서의 내용 분석”. 『사회정책연구』 26집: 20-55.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50년사 편찬위원회. 2009.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50년사 1959~2009』. 서울: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성민선. 2003. “한국사회복지학 구성의 3요소에 대한 시험적 담론: 학대받는 사회사업의 위치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리뷰』 8집: 163-180.

- 신응철. 2001. 『해석학과 문예비평』. 서울: 예림기획.
- 양옥경. 2009. “사회복지실천: 학문적 흐름과 역할에 대한 평가와 전망”.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71-212.
- 염무웅·반성완 역. 1999.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3』. Arnold Hauser. 경기 파주: 창비.
- 이명재. 1997. 『문학비평의 이론과 실제』. 서울: 집문당.
- 이상섭. 2009. 『문학 연구의 방법: 그 한국적 적용을 위한 개관』. 서울: 탐구당.
- 이상우·이기한·김순식. 2005. 『문학비평의 이론과 실제』. 경기 파주: 집문당.
- 이한우 역. 1988. 『해석학이란 무엇인가』. Richard E. Palmer. 서울: 문예출판사.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997.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50년사 1947~1997』.
- 이혜경. 1995. “사회복지학의 정체성”.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63-74.
- 임옥희 역. 1998. 『역사주의』. Paul Hamilton. 서울: 동문선.
- 임형택. 2000. “한민족의 문자생활과 20세기 국한문체”. 『창작과비평』 107호: 284-308.
- 정명환. 2003. 『문학을 생각하다』. 서울: 문학과지성사.
- 정연희. 1992. 『이야기 선교사(史) 양화진』. 서울: 흥성사.
- 조동일. 1985. 『한국문학사상사시론』. 서울: 지식산업사.
- 최근. 1995. “사회복지학의 연구경향분석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14.
- 최신한 역. 2000. 『해석학과 비평』. F. Schleiermacher. 서울: 철학과현실사.
- 최옥채·黒木保博. 2011. 『일본 사회복지학 삼각측량』. 경기 파주: 양서원.
- 최원규. 1995. “사회복지교육 반세기의 회고”.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1-41.
- 한국사회복지학회 편. 2008. 『사회복지계 원로 회고록』. 경기 파주: 양서원.
- 한국사회사업대학협의회 편. 1973. 『文學과 社會事業』. 서울: 수문사.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 『한국사연표』. 서울: 동방미디어.
- 홍경준. 1998. “한국 사회복지학 연구방법의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31-53.
- 홍선미. 2003. “사회복지실천학문의 정체성”.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5-40.
- 廣野由美子. 2005. 『批評理論入門』. 東京: 中央公論新社.
- 大橋洋一 편. 2006. 『現代批評理論のすべて』. 東京: 新書館.
- Gulick, Sidney L.. 2011. *Evolution of the Japanese, Social and Psychic*. BIBLIOBAZAAR.
- 경향신문. 2011년 10월 4일. ‘경기여고 LA 동문 “5분 합창 위해 날아왔어요”’.
- 경향신문. 2012년 1월 20일. ‘도올 “고전 번역, 당대 의미를 오늘의 의미체계에 맞추어야”’.

A Study on Criticism of Korean Social Welfare Studies in the Early Formative Period

-focused on the First Generation's Introductory Texts and the Perspective of Historicism-

Choi, Ok-Chai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has aimed to observe the starting point of Korean social welfare studies with the perspective of historicism. Basically, this study has focused on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 by what kind of influences and contents had been built Korean social welfare studies in the early days? The collected data from introductory texts which had been written by the first generation of Korean social welfare studies was analyzed according to the framework as follows; 1) historical summary of the texts, 2) individual historical disposition of the writers, 3) historical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terms, and 4) historical context of the contents for social welfare studies.

As results, some issues related with the formation of Korean social welfare studies are stressed as follows; 1) data collecting from the first generation of the researchers and writers for recovering the introductory texts, 2) study of the influences of christianity, 3) study on the influences of aid agencies from overseas, 4)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mixed with American and Japanese social welfare studies, and 5) study on the examination of developing process of Korean social welfare studies afterward. Finally, the limit of this study that the individual history of writers could not cope detailed and deeply is mentioned.

Key words: Korean Social Welfare Studies, Social Welfare Studies Criticism, Perspective of Historicism, the First Generation, Introductory Texts

[논문 접수일 : 12. 05. 20, 심사일 : 12. 05. 30, 게재 확정일 : 12. 07. 09]